

‘공기청정 기능’ 시스템에어콘 설치해 놓고도

광주시교육청 공기청정기 또 설치

광주시의회 진선거 의원 “예산 이중낭비”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능을 갖춘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서도 별도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추진, 형세 이중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217곳에 총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난방 시설(공기청정기능을 갖춘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을 설치한 데 이어 고교 2, 3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광주시의회 2차 추경 심의에서 ‘물·철관 및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비로 21억5천만원을 요청해 예산을 확보, 공립교 274실과 사립교 801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초·중·고 모든 교실에 연차별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교실에 이미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용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진선거 의원(민주·북구1)은 “이미 공기청정기능이 갖춰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중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시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스템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허술한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냉·난방기 설치 사업 때 공기청정 기능이 없는 좀 더 저렴한 기기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광주시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김용홍 기획관리국장은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은 법으로 의무화 돼있고 좋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구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전 3사에 알아본 결과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제품과 청정 전용 제품이 갖고 있는 공기청정 효과에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 낭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가전 3사에 두 제품의 공기청정 효과 비교 분석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공식 답변 문서로 받아본 뒤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사기 테러’에 별별

中 위구르자치구 또 시골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 사는 한족들은 최근 주사기 테러범들이 휘두른 주사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다.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민족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우루무치의 위구르족 청년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시내 곳곳에서 한족으로 보이는 시민들을 주사기 바늘로 물려 찌르는 테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주사기 바늘에 찔렸다고 우루무치시 당국에 신고한 시민들은 모두 531명이다. 위구르족 10대 청소년들로 보이는 이들은 거리에서 주사기 바늘로 행인들을 찌르고 달아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루무치에 사는 한족들이 지난 3일부터 주사기 테러를 막아달라며 정부에 맞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자 군의관들을 긴급 파견해 주사액의 실체에 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민해방군 군의관들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주사기 속에는 방사는, 유해 화학물질을, 탄자균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핵문제 협의차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근본변화 없어…다자해결 필요”

방한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북한이 최근 강·온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핵문제 협의차 방한한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측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북한이 여기자를 석방한 것 등은 반가운 일이지만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이고 북핵 문제는 다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대한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공조수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할 준비도 돼있으나 오직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규 前 통일부 장관 인터뷰

“北 대남 유화책은 수익 높이려는 의지”

금강산 관광객 총기 사망사건 후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 등으로 남북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최근 북한이 유화정책을 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으로 인해 남북문제가 화해무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합의, 월북 어선 귀환 등의 성과도 있어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시기,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북한전문가이자 DJ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경남대 총장으로 부터 들어본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유화책을 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최근 유화책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 개성관광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재개를 바라는 극히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고 싶다는 구상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게 한 것이 맞다”

-현정은 회장이 북측과 5개항에 합의했다. 이는 북측과 현대의 이해가 각각 맞아 떨어진 결과 일텐데.

“지난 1년간 북한이나 현대 측이나 손실이 매우 컸다. 특히, 개성공단이 양측에 큰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본다. 현대측은 중단된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영업이익에 목적이 있었지만, 북한은 남측에 충분한 강징책을 구사했으니만큼 이전 다시 못이기는 척 남북교류·협력의 재개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좋은 시그널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경제적 이득도 물론 노린 조치다”

-북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문상을 오기 전에는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을 했지만, 서울에 와서는 ‘통관’을 시도했다. 북측이 이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측에서는 김대중 평화재단으로부터 서거소식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문단 파견을 통보한 것 같다. 물론 이때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당국간 대화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비서 및 통전부장 등 고위 당국자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당국간 고위급 대화와 접촉이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의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통민봉관’은 그들 체면 때문이지 전략적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다시 우리들 농축원료를 발표하는 등 핵에 대한 집착은 변함이 없다. 북핵과 남북관계 진전은 병행할 수 있다고 보나.

“결론부터 말하면 핵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와 경제적 보상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음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노력중에 남북관계 진전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문제는 선순환



■약력

▲경남대 교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현 경남대학교 총장

적 병행론이 현실적인 것이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3대세습이나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견해는.

“김정일은 3대 세습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간 세 아들들은 노동당 조직부 등의 소속으로 후계수업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정운에게 더 무게를 두고 후계교육을 추진중이었다. 김정운이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며 후계자로서 가능성을 테스트 하는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열릴수 있겠나. “MB 정부도 정상회담을 해야된다. 제3차 정상회담 개최는 무엇보다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핵심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또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과거 이념적 대립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동북아의 큰 구도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차례 정상회담의 경험적 사례에 비춰, 우리 사회 내의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김정일체제 붕괴가능성 희박

일관된 대북정책 펼쳐야”

-해외언론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조기붕괴설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조기붕괴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의 건강 역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미 후계체제 정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 유고로 인한 조기붕괴설도 당분간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북협력국면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어 우리 내부의 갈등도 심하다.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10년만에 보수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남남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향후 평화통일을 이루는 불가피한 방향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원칙있는 포용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보수나 진보나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의견수렴을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05-KB 「사람세상 방영」

가발

조슬림!!

각 품 50만원~

귀하의 몸무게와 인격을 보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 010-873-5858, 010-873-5858

원할 때 수 제 011-690-9955

중고정수기 할인판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8만원~11만원

모든 정수기 할인 교환

정수기 프리자